

이선재 국어

2009 지방직 수탁 문제 및 해설

*시험 총평

	문항 수 (20)
국어 문법	1
국어 규범	어문 규정(3), 올바른 문장쓰기(2)
말과 글(독해)	10
문학	1
한자 및 성어	한자(2), 한자성어(1)

이번 지방직 수탁 문제의 가장 큰 특성은 독해가 전체 문항수의 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어법은 쉬웠으며, 독해의 전반적인 난도는(예년의 시험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이는 누차 강조해왔듯이 국어(언어)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시험 역시 수능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처럼 ‘어법(어휘)+ 독해 (문학 분석 포함)’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보인다.

독해 능력의 신장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생각하듯이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는 길이가 짧고 출제 유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주제문을 찾고, 요약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문제의 유형을 염두에 두며 훈련을 한다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이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시험은 그간 지식형 문제를 꾸준히 출제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둘 것을 당부한다. 결국 해법은 이해를 통한 지식의 습득 및 언어 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학습밖에 없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의 결과가 매 시험마다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문 분석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해설로 설명하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군요. 조만간 해설 동영상상을 찍어 카페와 이그잼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충격적인 소식에.....오후까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어 c 책형>

문1. 다음은 문장 성분 상 결합이 있는 문장들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외국에 나가면 말은 저절로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훌쩍 떠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 ② 나자프의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
- ③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일 것이다.
- ④ 회사는 방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답 : ④

④는 필수부사어가 빠진 문장이다. ‘활용하다’는 ‘~을 ~에 활용하다’ 혹은 ‘~을 ~으로 활용하다’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주어가 빠져 주술 호응에 문제가 있는 문장들이다.

문2.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진 것은?

- ①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니 짙수가 노랗다.
- ②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③ 말 한 마디에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 ④ 밤을 하얗게 새우고서야 겨우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

정답 : ②

②는 비유적으로 쓰인 감각어의 용례이다. 한국어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특성이 있다.

나머지 용례는 모두 시각적이고 사실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문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버스나 전철의 경로석에 앉아서야 되겠는가?
 -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붉은 신호등을 지킨 장애인 운전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 돈을 벌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행위를 해야 한다.
 - ② 민주 시민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 ③ 도덕성 회복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④ 개인의 이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은 지켜야 한다.

정답 : ④

글의 주제는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된 내용이어야 한다. 제시문의 세 가지 예시는

1. 자신의 육체적 피로함을 이유로 경로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어겨서는 안 된다.
2.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어겨서는 안 된다.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결국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합의 및 규약’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것을 적은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일반화와 구체화를 하는 기본적인 독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해 이 능력을 기를 것을 당부한다.

제시문에서 개인적 신념을 일반화할 수 없으며, 특히 ‘일관된 행위’라는 진술은 세 번째 예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머지 진술과 마찬가지로, 논점 이탈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문4. 밑줄 친 부분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시청 직원들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 ②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주인의식, 곧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쥐는 ER(형질내세망)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위 축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내년 초 주가지표에 대해 2,000포인트 돌파를 외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는 연내 초강세장의 도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오던 증권사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답 : ①

‘정작’은 요건하거나 진짜인 것을 말하는 명사이다. ‘정작’의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므로, 적절하게 사용된 예문이다.

<오답풀이>

② ‘곧’은 바꾸어 말하면, 다름 아닌 바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인 의식’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즉’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③ (다)

④ (라)

정답 : ④

통일성이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다. 즉 '군민들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기'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라)의 '음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못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한 공무원'의 예는 개인적 문책 사유이지 군청의 개혁과 연관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성에 어긋난 진술이다.

문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신문은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가 '사실 보도'라고 말한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신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① 진실보도를 위하여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
- ③ 신문의 임무는 '사실 보도'이나, 진실 보도는 수난의 길을 걷는다.
- ④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답 : ①

요지, 즉 주제문을 찾는 문제이다. 글의 구조를 분석해 보자.

- 1. 일반적 전제(신문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 2. 기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내용을 왜곡하는 현실을 비판함(논제 제시)
- 3. 올바른 보도 자세 및 신문의 역할 강조(논지의 요약적 제시)

따라서 이 글의 주제문은 마지막 문장에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은 ①이다.

ㄷ.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ㄱ.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①ㄷ-ㄱ-ㄹ-ㄱ-ㄱ-ㄴ

②ㄷ-ㄴ-ㄱ-ㄱ-ㄱ-ㄴ

③ㄷ-ㄱ-ㄴ-ㄴ-ㄱ-ㄱ

④ㄷ-ㄴ-ㄱ-ㄱ-ㄱ-ㄴ

정답 : ④

논리적 순서 배열 문제이다.

먼저 각 문장의 지시어와 핵심어에 밑줄을 쳐 보자. (제시문 참조) 글의 구성이 보이지 않는가? 이 글은 ‘그러나’ 앞과 뒤의 내용 구성이 다른, 대조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영어 공용화 국가 중 다민족 다언어 국가’ 및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를 대비한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상황을 쓴 ‘ㄴ’은 마지막으로 배치해야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ㄷ. 영어 공용화 실시-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 : 화제의 제시

ㄴ. ‘이러한 점’의 긍정성 : 부연 설명

ㄱ. 싱가포르인들의 예 : 예시를 통한 뒷받침

ㄱ.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대비함 : 예시를 통한 뒷받침

ㄴ. 영어 공용화 국가와 한국의 차이점 : 논점의 구체화

문 10.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형님 놀부 댁에서 쫓겨나 마을 어구에 당도하니 여러 아이놈들이 밥 달라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그러더니 흥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또 어찌하여 이상한 목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날 장가 좀 들여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히더라.

①(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권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싶지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②(약속이 늦게 와서 기다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난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워낙 막혀서 말이야.”

③(자꾸 그릇을 깨는 동생에게) “아니, 너 혹시 그릇 집에 뭐 잘 보일 일이 있는 거 아냐?”

④(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

정답 : ①

홍부 큰 아들의 말하기 방식은 회유이다. 회유의 구체적 방식은 자신의 이익을 감추고 상대방의 이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형태이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다.
- ③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위로의 말하기 방식이다.

문 11. 다음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일본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04년 전국 1만 7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가구 동태 조사를 보면, 가구당 인구수는 평균 2.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인 가구는 28.7%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18.1%로 조금 줄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30~34살 남성의 45.4%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층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33.1%였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여성은 10.2% 증가한 수치다. 25~29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64%, 여성은 56.1%로 조사됐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혼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독신으로 부모로부터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으로 추정된다.

- ① 25~34살의 남성 중 대략 반 정도가 부모와 동거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만혼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 ③ 30~34살의 경우 부모 동거비율은 5년 전에도 여성이 남성 보다 높지 않았다.
- ④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 ④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 것이다. ②와 논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정답은 ④가 맞다.

문제는 제시문의 통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라는 생략된 내용의 추리 문제이다. ②의 선택지는 일본 사회의 현상을 ‘현대 사회’라는 일반적 범주와 동일시하므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진술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 역시 현대 사회에 속하므로, 이 진술의 정당성 여부는 선택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계 자료에서는 어디에서도 ‘캥거루 족’이 늘어난 원인을 직장 문제로 한정 짓고 있지 않다. 제시문 마지막에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이유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지만, 생활비 절감의 문제, 높은 집값의 문제, 경기 불황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

라서 ④는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없는 단정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5~29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64%, 30~34살 남성의 45.4% 이므로 선택지 ①은 올바른 진술이다.

③

1. 30~34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45.4%,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33.1%이다.
2. 이것이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여성은 10.2% 증가한 수치이므로,
3. 5년 전은 1-2를 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나 5년 전이나 남성의 동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ㄱ.지붕 | ㄴ.의논 | ㄷ.타향살이 |
| ㄹ.오세요 | ㅁ.합격률 | ㅂ.불이다 |

<보기>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따른 예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에 따른 예	
①	ㄱ, ㄴ, ㄹ	ㄷ, ㅁ, ㅂ	
②	ㄱ, ㄴ, ㅁ	ㄷ, ㄹ, ㅂ	
③	ㄴ, ㄹ, ㅂ	ㄱ, ㄷ, ㅁ	
④	ㄷ, ㅁ, ㅂ	ㄱ, ㄴ, ㄹ	

정답 : ①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 1항이 나왔다. 총칙을 이해한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무리 없이 풀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은 문법을 고려하여 형태소를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문 13. 어문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기여하고저, 빠드렁니, 돌(‘첫 생일’), Nakdonggang(‘낙동강’)
- ② 퍼분다, 처부수다, 수태지, Daegwallyeong(‘대관령’)
- ③ 안성마춤, 샅쟁이, 더우기, 지그잭(‘zigzag’)

④고살, 일찍이, 굶주리다, 빠리('Paris')

정답 : ③

① 기여하고자(‘-고자’는 욕망을 나타내는 어미임)

② 퍼붓다

③ 안성맞춤, 살랭이, 더욱이

지그재그(짧은 모음 다음에 무성 파열음 p,t,k가 나올 때에 받침으로 쓴다. ‘zag’의 g는 무성파열음이 아니므로, 받침으로 쓸 수 없다.)

④ 굶주리다, 파리(외래어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14. ㉠~㉣중 문맥상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은 제상을 제외하고는 판 둘레에 최소 ㉠순가락충 폭만큼의 ㉡운두가 둘러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거기에 걸쳐 놓은 수저를 신경 안 쓰고 집어 올려 쓸 수 있게 하려 하는 배려에서 이다. 둘레가 ㉢도두룩하게 ㉣내둘리지 않고 막 끓긴 식탁은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기가 일쑤고, 수저 뒀을 따로 놓아야 수저를 편하게 집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④

내둘리다 : 내두르다의 피동사이다. ‘내두르다’는 ‘이리저리 휘휘 흔들다,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는 뜻이 있다.

제시문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내두르다’가 아닌 ‘두르다’를 쓰는 것이 맞다. 따라서 ‘둘레가 도두룩하게 들리지 않고’로 쓰는 것이 좋다.

* 순가락충 : 순가락의 자루

운두 : 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

도두룩하다 : 보기 좋을 정도로 자라나 있다.

문 15. 밑줄 친 부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젯밤 열한 시 경,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모씨가 계산을 할 때가 되자 갑자기,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설명하려던 가게 주인을 우산 꼭지로 찌르고, 유리 진열장 등을 망치로 부수다가, 달려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고 있던 김모 씨는, “비싼 음식을 실컷 먹었고 지불할 돈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요금이 너무 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고 말했습니다.

- ① 賊反荷杖
- ② 牽強附會
- ③ 小貪大失
- ④ 反面教師

정답 : ②

김 씨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특히 기사는 ‘트집’이라는 단어로 그의 말에 논리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잘잘못을 따질 때 쓰는 말이므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선택지이다. 함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 ② 견강부회(牽強附會)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 유리하게 함.
- ③ 소탐대실(小貪大失)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 ④ 반면교사(反面教師) :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란 뜻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6 ~ 문 17]

이주노동자들이 사냥개에게 쫓기는 약한 동물들처럼 내몰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채들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어.’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이 없다. 시민권은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낸 시민이 정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그리고 뺄셈을 잘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인권은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처럼 겉으로는 시민이지만 사실상 시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설계하는 게 인권의 개념이다. 시민권 개념 안에서 인권을 바라보면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창문(window)의 어원은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이 뜻을 따르면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구성원끼리 서로 ㉢배

척하고 ㉔갈등을 유발하는 시민권보다 서로의 이해를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문 16.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㉑ - 墜落
- ② ㉒ - 待遇
- ③ ㉓ - 排斥
- ④ ㉔ - 葛藤

정답 : ①

- ① 타락(墜落 : 떨어질 타, 떨어질 락)
- ② 대우(待遇 : 기다릴 대, 만날 우)
- ③ 배척(排斥 : 밀칠 배, 물리칠 척)
- ④ 갈등(葛藤 : 칙 갈, 등나무 등)

문 17. 위의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다보기 - 들여다보기
- ② 분리의 원칙 - 포괄의 원칙
- ③ 동질성 조장 - 이질성 조장
- ④ 시민 중심의 설계 - 인권 중심의 설계

정답 : ③

제시문은 ‘인권’과 ‘시민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조적인 글을 읽을 때는 대조되는 개념의 속성을 밑줄을 그으며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권	인권
분리하는 개념(뺄셈)	합치는 개념(더하기)
안에서 밖을 보기(내다보기)	밖에서 자유롭게 보기(들여다보기)
시민권 중심(배척과 갈등)	인권 중심(이해와 통합)

따라서 ③은 제시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또한 조장(助長)이란 말은 조금씩 키우려고 무리하게 힘을 들이다 오히려 망침을 이르는 말이므로, 부정적인 뜻과 어울리는 단어이다. 따라

서 긍정적인 인권을 뜻하는 개념과는 같이 쓸 수 없다.

문 18.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 양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 모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왜냐하면 다수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특성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를 따르게 되면 그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를 따지게 되면 그 지름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영희는 고속도로에서 주변의 차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
- ② 철수는 검색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본다.
- ③ 순이는 발품을 팔아 값이 가장 싼 곳에서 물건을 산다.
- ④ 명수는 여행을 가서 밥을 먹을 때 구석진 곳이라도 주차장에 차가 가장 많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정답 : ③

제시문의 논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다. 이는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행위, 즉 다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은 이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은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 ‘판단’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즉 자신의 판단 기준이 우위인 행위 양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수에 의한 선택’을 고려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느 지점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생활을 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되었다. ㉠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했다. ㉡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데 혐오감을 나타내는 민족들은 서유럽의 나라이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먹는다. ㉠ 그러나 식생활 문화를 달리하는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 또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도 서유럽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②

㉠의 앞에서는 개를 식용 동물로 생각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의 뒤에서는 개고기를 혐오하는 나라를 제시하며, 그들의 음식 역시 문화가 다른 힌두교도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결국 제시문은 개고기를 먹는 우리와 먹지 않는 서유럽 나라의 차이점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문 20. 다음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끝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호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두 생각을 똑똑히 그리고 한결 같이 구별하지 못하리란 것은 철학자나 언어학자나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형성된 관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도 분명해 질 수 없다.

① 인간은 언어 사용 이전에도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분석한다.

③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

④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답 : ③

가장 어려운 추론 유형인 전제 찾기가 나왔다. 독해 훈련의 필수 과정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전제란 결론(주장, 주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 주장보다 앞에 존재한다. 제시문의 핵심 주장은 맨 앞의 문장이다. 즉 말이 없으면 생각(개념)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과 생각이 연관이 있다는 포괄적인 진술이 이러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전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답

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은 제시문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② 언어학자들의 견해는 제시문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 즉 구체적인 근거일 뿐이다. 따라서 결론의 바탕이 되는 전제가 될 수 없다.

④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진술에서 일단 감이 있는 학생은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전제란 주장을 이끌어내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면 전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